“만물은 나와 한몸”

‘관조스님 사진집 지상중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관조 스님의 유고 사진집 출간
앵글속으로 지혜의 법을 보다

1975년부터 30여년간 작업
총 20여만점 中 278점 엄선

대상과 바라본이 교감에 의지
사진 보는이 마음에 여운 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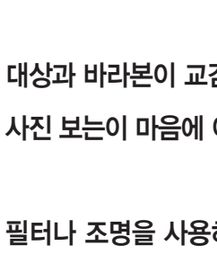
필터나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
단순함과 담백함 가장 큰 묘미

사진집 〈觀照(관조)〉는 수행자이면서 사진가로 한국 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관조(觀照) 스님(1943~2006)이 1975년부터 30여 년간 찍어온 20여만 점 가운데 불교 관련 사진 278점을 엄선해 담은 유고 사진집이다. 〈관조〉는 20여 권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필름카메라로만 작업한 사진들로 이루어졌고, 주로 소재별로 나뉘었던 전작들과 달리 한국 불교의 모든 소재를 총망라했다.

관조 스님의 사진은 오로지 대상과 바라보는 사람의 교감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빛을 통과한 대상들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프레임 속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는 이의 마음으로 들어와 여운을 남긴다. 현란한 이미지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평범하고 꾸밈없는 차분한 응시’는 비범한 힘을 분출한다. 사진집 〈관조〉는 스님의 출가본사이자 평생을 주석한 부산 범어사 사진으로 시작한다. 속세와 탈속의 경계인 사찰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당간지주를 만나고, 곧이어 절집 전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열린 공간이 나타나고, 그곳에 어우러진 탑과 석등을 둘러본 후 대웅전을 포함한 각 전각을 살핀다.

그러고 나서 그 안의 불상, 탱화, 닫집, 문살, 수미단, 나한, 단청 등을 하나하나 보듬는다. 이어 수행자들의 일상 공간인 승방, 공양간 등의 사계절 모습을 들여다본 후, 다비식과 수계식을 비롯한 특별한 의식을 경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종, 부도, 탑비 등까지 두루 짚은 뒤에 다리를 건너 폐사지로 향하는 흐름이 〈관조〉가 인도하는 여정이다. 이 만행의 길에는 자연과 인간의 만화(萬化)가 숨쉰다. 종교를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큰스님들의 친근한 모습, 쉽게 볼 수 없거나 이제는 볼 수 없는 문화유산들의 소중한 모습들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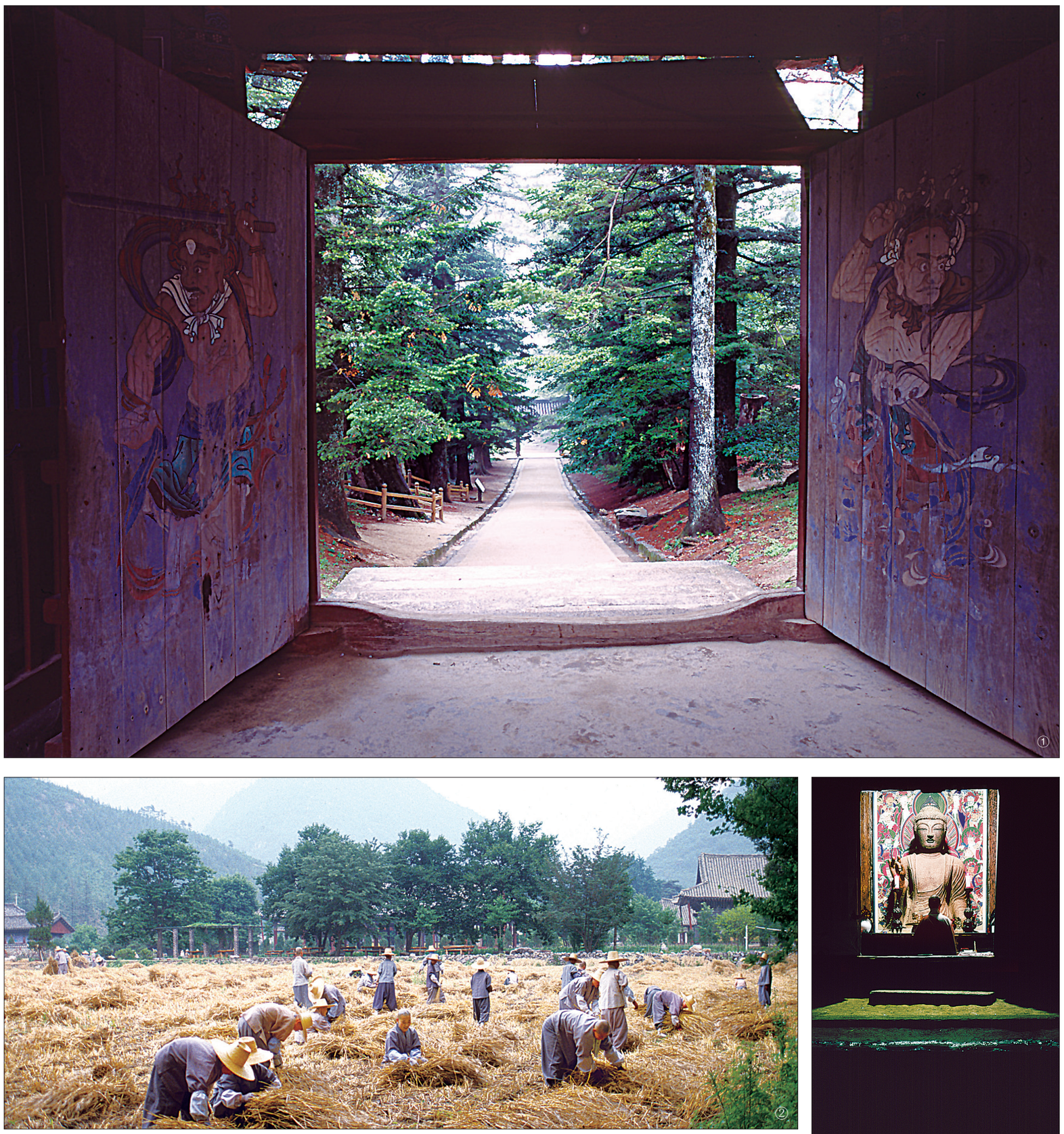
〈관조〉는 사찰이 자연과 어우러져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사찰 속 전각과 탑 등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들이 자연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과 하나되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사진집 〈관조〉
관조스님 문도회 엮음
불광 펴냄/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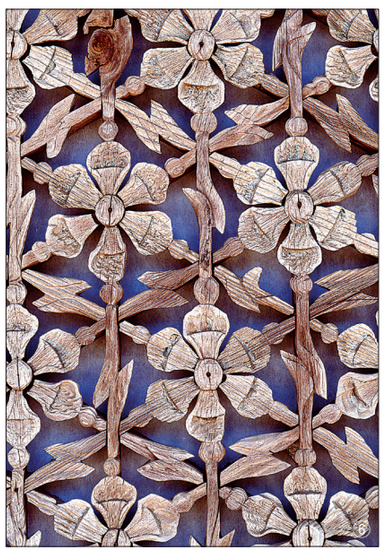
1984년 성황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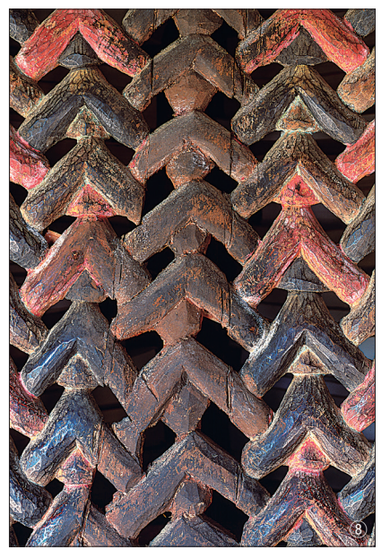
① 2002년 해인사
② 1986년 운문사
③ 1995년 실상사
④ 2004년 다비식
⑤ 1994년 마곡사
⑥ 1994년 불갑사
⑦ 1994년 신흥사
⑧ 1994년 용문사 윤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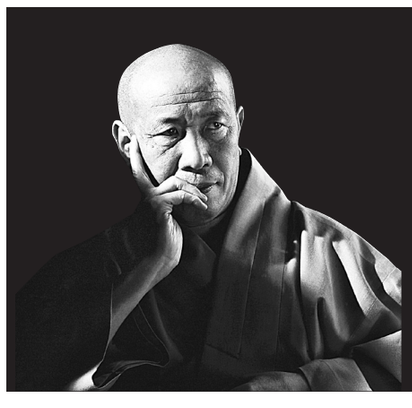












관조 스님(1943~2006)은?

1943년 3월 19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1960년 1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지효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1961년 4월 15일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하안거를 시작으로 9안거를 성만하고, 1965년 7월 15일 합천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1년 해인사 승가대학 제7대 강주로 취임해 후학을 양성했다. 1976년 부산 범어사 총무국장 소임 이후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았다. 1978년부터 범어사에 주석하며 사진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30여 년간 전국 산사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는 운수납자의 길을 걸어왔다.

관조 스님 사진의 묘미는 필터나 조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순함과 담백함에 있다. 1980년 〈승가1〉을 시작으로 〈열반〉 〈자연〉 〈생, 멸, 그리고 윤회〉 〈님의 풍경〉 등 20여 권의 사진집을 출간했다. 그중 〈사찰 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에 선정됐다. 〈아시안게임 경축사진전〉 〈한국일보 올림픽 문화행사 초청전시〉 등 10여 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관조 스님 사찰 꽃살문 사진전〉(2003년)은 국립청주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제주 춘천 부산 서울 등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를 했으며, LA(1982년), 토론토(1991년), 시카고(1994년) 등 해외전시 외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부산미전 금상(1978년), 동아미전 미술상(1979년), 현대사진 문화상(1988년)을 수상했다.

‘관조(觀照)’라는 법호대로 사진을 수행이자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온 사진작가 관조당 성국 스님은 지난 2006년 11월 20일 세수 64세, 법랍 47세로 범어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이 남긴 사진 필름은 20여만 점에 이르며 범어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